

춘향전의 이념적 탈중심화 담론

- 성춘향과 변학도의 대화 분석 -

김 병 권*

차 례

- | | |
|---------------------|-------------------------|
| I. 서론 | 2. 가치체계에 의한 가치체계의 파괴 |
| II.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의 대립 | III. 가치체계의 최극적 해체 이데올로기 |
| 1. 지배자 욕망의 권위주의적 실현 | IV. 결론. |

I. 서론

춘향전 또는 춘향가가 많은 이본의 소설 또는 판소리로 남아 있고, 현재에도 많은 소설 독자 또는 판소리 청중이 춘향전¹⁾을 소설 또는 판소리로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춘향전의 존재 및 독자의 수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연쇄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신분 상하의 구분없이 춘향전을 향유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작품의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흥미소가 작품 속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독자가 춘향전에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춘향전은 소설의 작품명이며 춘향가는 판소리의 작품명이다. 이 글에서는 소설로서의 춘향전을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하에서 작품명으로는 춘향전을 사용하고, 그 향유층을 독자라고 하겠다.

공감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춘향전이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춘향전에서 만족스럽게 여기는 기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춘향전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

춘향전의 의미를 여러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춘향전에서 표현한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규명하여 담론분석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근대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 속한 이해집단들이 중세 지배자의 가치체계를 더 이상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형성된다. 그리고 가치체계의 보편적 성격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공공연하거나 체계적인 방식으로 의문시되지 않는다²⁾. 춘향전의 표면적인 주제는 열녀의 교훈이고 이면적인 주제는 인간적 해방의 사상이며, 작품의 주축은 신분적 제약과 신분적 해방의 갈등으로 이 갈등에서 후자가 승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³⁾. 열녀의 교훈은 조선조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문시하지 않는 가치체계이라면, 인간적 해방 사상은 그 가치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춘향전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치체계 또는 이데올로기는 각각 그 나름의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그 집단적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담론의 형식을 떠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의 의미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형태의 계층간 갈등에 연결되는 다름 속에서 성립된다⁴⁾. 그리고 담론분석이란, 푸코의 견해를 따르면, 하나의 기표(記表)와 다양한 기의(記意) 사이의 대립, 표면적인 의미와 숨겨진 의미 사이의 대립을 수직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⁵⁾. 그래서 춘향전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성춘향의 발화를 다른 인물들

2) 페터 V. 지마 지음, 서영상·김창주 옮김, 『소설과 이데올로기-현대 소설의 사회사』(문예출판사, 1996), pp. 22~24.

3) 조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이상택·서대석·성현경 공편, 『한국고전소설』(계명대학출판부, 1974), pp. 239~240.

4) 다이안 맥도넬 지음,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 1992).

5) 클라우스-미하엘 보그달 편저,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새로운 문학 이론의 흐름』(문학과학사, 1994), pp. 38~39.

의 발화와 관련하여 분석해야 하며,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담론분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향유하면서 흥미를 느껴온 춘향전의 의미를 성춘향과 변학도의 발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자료로는 다양한 춘향전의 이본들 가운데 지금까지의 춘향전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대상으로 한다.

II.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의 대립

춘향전에서 성춘향은 기생이면서 기생이기를 거부한다⁶⁾. 변학도는 기생이기를 거부하는 성춘향의 의지를 부정한다. 여기에 변학도는 지배계층에 속한 인물로서 지배자의 가치체계를 공공연하게 수용하여 의심하지 않으며, 성춘향은 피지배계층에 속하는 인물로서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변학도의 가치체계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한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가 근거하고 있는 집단적 이해관계를 그들의 발화로써 해석할 수 있다.

1. 지배자 욕망의 권위주의적 실현

소설에서 화자는 적대자가 쓴 가면과 그의 회화적인 모습을 꿰뚫어 보며, 주인공과 독자의 손을 꼭 쥐고 그들을 가면이 벗겨지는 저 인식의 장소로 인도한다⁷⁾. 춘향전에서 성춘향은 변학도의 가면을 벗기고 그 실상을 밝히는데, 변학도의 가면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변학도는 사또로 부임한 후, 수청을 거부하는 성춘향에게 다음과 같이 발화한다.

미지미지라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열여로다 네 정결 구든 마음 엇지 그리 애어썩야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는 이수지는 경성 사더부의 자제로서 명

6) 조동일, 앞의 논문, pp. 228~233.

7) 패터 V. 지마 지음, 서영상·김창주 옮김, 앞의 책, p. 36.

문귀족 사위가 되야쓰니 일시 사랑으로 잠깐 노류장화하던 너를 일본 생각 하진년야 너는 근본 절형 잇서 전수일결하여 짜가 흥안이 낙조되고 뵈발이 난수하면 무경세월 양유파를 탄식할계 불상코 가련한 게 너 안이면 뉘가 기라 네 아무리 수절한들 열여포양 뉘가 하라 그는 다 버려두고 네 골 관장의 게 미이미 올으나 동자놈으게 미인 게 올은야 네가 말을 좀 하여라<하9x ~ ㅎ>8)

변학도는 수청을 거절하는 성춘향을 열녀, 정절, 절행, 수절 등의 말을 사용하여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의 수청을 회유하고 있다. 이 발화에서 열녀, 정절, 절행, 수절 등은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여성이 지켜야 할 중요한 규범의 일부이다. 유교적 가치를 신봉하는 사회에서는 이 규범을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쳤고, 당시의 사회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이 가치체계를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학도는 유학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여성의 규범을 공공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변학도는 성춘향과 이몽룡 사이의 인연을 수로로부터 듣고 다음과 같이 발화한다.

이놈 무식한 상놈인들 그게 엇더한 양반이라고 엄부시하요 미장전 도련 임이 하방의 작첩호야 사자할고 이놈 다시는 그런 말을 입박그 너여셔난 죄 을 면치 못하리라 이무 니가 저 한나를 보라다가 못보고 그져 말야 잔말 말고 불너오라<하6x ~ ㅎ>

변학도는 상놈과 양반을 구별하며, 상놈은 양반의 작첩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양반은 상놈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상놈과 양반의 구별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차별화를 의미하고, 지배계층의 권위주의를 강조한다. 그리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차별화는 회계의 발화에서 더욱 보편화된다.

네 여바라 어 그연 요망한 연이로고 부의 일심소 천하으 일식이라 네 여

8) 이 연구의 자료는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제3권에 수록한 <열여춘향수결가>이다. 출처를 권, 장, 면의 순으로 표시하였는데, 위의 표시는 하권 제 9장 전면에서부터 후면까지에서 인용하였음을 뜻한다.

러번 식양할 게 무어신야 사도게옵서 너를 추왕하여 하시난 말삼이게 너갓
튼 창기비게 수절이 무어시며 정절이 무어신다 구관은 권송하고 신관사또
연접하미 법정의 당연하고 사례오도 당당커든 고히한 말 니지 말아 너의 갓
턴 천기비게 충열 이븐 왜 잇시리<하9ㅎ>

회계의 발화 가운데 수절, 정절, 충열 등은 유교의 이념에 근거한 행동 규범이다. 이 규범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체계의 일부가 되며, 그것을 지키는 일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무이다. 그런데 회계는 수절, 정절, 충열 등과 같은 유교의 가르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신분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천기는 결혼을 하여도 그런 유교사회의 가치체계인 규범을 지키지 말아야 하며, 그런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를 확대 해석하면 가치체계의 일부인 유교의 규범을 실천하는 데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춘향전에서 지배계층은 자신들과 피지배계층을 차별화한다.

변학도는 자신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수청을 완강하게 부정하는 성춘향에게 크게 노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발화한다.

이연 드러라 모반대역호난 죄는 능지처참하여 잇고 조롱관장하는 죄난
겨서울의 울써 잇고 거역관장하난 죄는 엄형정비하는이라 죽노라 서리마라
<하10ㅎ>

변학도는 성춘향을 회유할 수 없게 되자 성춘향의 수청거부를 모반대역, 조롱관장, 거역관장의 죄로써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나 성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한 것은 모반대역도 아니며, 조롱관장도 아니고, 거역관장도 아니다. 그것은 성춘향이 ‘유부검탈’<하10ㅎ>이라고 하였듯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단지 여성이 지켜야 할 규범의 실천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일에 불과하다. 변학도에게는 지방관리로서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나, 성춘향에 대한 이러한 사법권의 행사는 지배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일종의 강압인 것이다. 따라서 변학도의 발화는 지배자의 부당한 사법권으로 여성의 권리를 부정한 권위주의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성춘향의 수청거부에 대한 변학도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첫째,

그는 유학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여성의 규범을 공공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입장을 표현하였으며, 둘째, 가치체계를 실현하는 데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차별화하였고, 셋째, 지배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변학도의 발화는 지배자의 가치체계를 권위주의로 실현하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변학도의 입장이 지배계층으로서 가면인 것이다.

2. 가치체계에 의한 가치체계의 파괴

춘향전에서 변학도로 대표되는 지배계층의 가면을 벗기는 인물은 성춘향이다. 변학도의 가면을 벗기고 그 실상을 보여주는 데는 성춘향의 행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성춘향 행위의 의미는 그의 발화로써 설명될 수 있다.

성춘향은 자신을 기생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수청을 요구하는 변학도에게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한다.

츄불싼이군이요 열불경이부절을 본밧고자 하옵난되 수차 분부 이러한이
싱불여사이옵고 열불경이부은이 처분더로 하옵소서(하9ㄱ)

성춘향의 발화 가운데 '츄불싼이군'과 '열불경이부'는 '일부종사'〈하9ㄱ〉와 함께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규범의 일부이다. 유교적 가치를 신봉하는 사회에서는 이 규범의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였고, 이 규범의 실천은 당시의 사회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의심하지 않은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성춘향은 유학적 가르침에 근거한 규범을 공공연하거나 체계적인 방식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성춘향의 이러한 입장은 변학도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변학도의 입장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춘향을 회유하려고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가치체계를 제시한 것이며, 성춘향의 입장은 변학도의 입장을 거부하기 위하여 그가 근거하고 있는 가치체계의 핵심을 활용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즉 성춘향의 발화는 가치체계에 근거하며, 그것도 가치체계의 가장 핵심 요소에 의존하여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의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성춘향은 기생에게는 충열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한 회계의 발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화하였다.

충효열여 상하 잇소 자상이 듯조시요 기심으로 말합시다. 충효열여 업다 하니 낫낫치 알외리다 ●히서 기심 농선은 동설영으 죽어 있고 ●서천 기심 아히로되 칠거학문 들어 있고 ●진주 기심 논기는 우리나라 충열노셔 충열문의 모셔놉코 천추형사하여 있고 ●청주 기심 화월리난 삼칭각의 올라 있고 ●평양 기심 월선이도 충열문의 드러 있고 ●안동 기심 일지홍은 성열여문 지은 후의 정경가자 잇싸온니 기심 히폐마음소셔<하10>

성춘향은 충, 효, 그리고 열을 실천한 기생들을 열거하면서 충효열녀에 상하가 있을 수 없으며, 충, 효, 그리고 열을 실천한 기생의 가치를 해하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다. 성춘향의 이러한 발화는 변학도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고자 제시하는 가치체계의 실상을 밝히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한 충, 효, 그리고 열의 실천을 생활화하는 데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학도가 권위주의적 차별화를 시도하여 피지배계층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성춘향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춘향의 발화는 유교적 가치 실현의 상하 차별화를 인정하는 지배계층의 권위주의에 대하여 그들의 가치체계로써 도전한 것이며, 이는 변학도가 대표하는 양반 집단과 춘향이 대표하는 기생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양반 집단의 권위주의적 가치체계에 도전하는 기생 집단의 이해관계는 기생이 아닌 피지배계층도 공감하고 있음을 다음의 발화로써 알 수 있다.

모지구나 모지구나 우리 풀 원임이 모지구나 저런 형벌리 웨 잇시며 저런 미질리 웨 잇습가 집장사령놈 눈익켜 두워라 삼문 밧 나오면 급살을 주리라<하12>

위의 인용은 성춘향이 매를 맞는 광경을 구경하던 한량들의 발화이다. 이 발화 가운데 원님은 변학도이다. 한량들은 변학도를 모질다고 하여 그의 잔학성을 폭로하며, 변학도의 명령에 따르는 집장사령을 급살하려고 한다. 이러한 한량들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성춘향에 대한 동정심의 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허상을 밝히려는 성춘향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성춘향은 수청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변학도가 모반대역, 조롱관장, 거역관장의 죄목을 열거했을 때 변학도에게 다음과 같이 발화한다.

유부겁탈하난 거슨 죄안이고 무어시요<하10ㅎ>

성춘향은 자신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변학도의 행위를 유부겁탈로 단정하였다. 성춘향의 이러한 단정은 자신의 수청거부가 모반대역 또는 조롱관장, 거역관장과 같은 불법이 아니며, 여성의 권리 및 가치를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지배계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성춘향의 의지는 자신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다른 지배계층에 대해서도 표현된다. 즉 성춘향은 변학도를 봉고파직한 어사가 이몽룡인 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에게 다음과 같이 발화한다.

니래오난 관장마다 기기이 명관이로고나 수의 사또 듯조시요 칭암결벽
 읍뽀 바우 바람 분들 문어지며 청송녹죽 푸린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릿가 그
 른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밤비 려여주오<하38ㅎ>

성춘향은 수청 거부를 변학도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다른 관장에게로 확대시킨다. 이러한 성춘향의 태도 및 발화는 변학도에게서 확인한 지배계층의 허상을 다른 지배계층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성춘향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청거절을 고수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의지는 당시 가치체계의 근거가 된 유학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데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지배계층보다 피지배계층이 더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춘향의 발화는 지배계층의 권위주의적 가치체계의 허상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청을 요구하는 변학도에 대한 성춘향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성

춘향의 발화는 첫째,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활용한 개인적 욕구 성취를 그 가치체제로써 거절하는 것이며, 둘째, 변화도가 대표하는 양반 집단과 춘향이 대표하는 기생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를 표현한 것이고, 셋째, 지배계층의 권위주의적 가치체계의 허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춘향의 발화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성춘향의 의지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가 더 이상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Ⅲ. 가치체계의 희극적 해체 이데올로기

앞에서 성춘향과 변화도의 대화를 중심으로 두 인물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변화도의 발화의 핵심은 지배자로서의 개인적인 욕망을 권위주의로 실현하려는 입장이고 성춘향의 발화의 핵심은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가치체계를 지배자로서의 권위주의로 실현하려는 입장과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의지는 각각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서술자에 의해서 보여지는 변화도의 심리 또는 행동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서술자는 변화도가 춘향에게 발화하는 심리 또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① 사또 디히하며<하9>
- ② 사또 우어 왈<하9>
- ③ 사또 기가 막켜 엇지 분하시던지 연상을 쉼달일체 탕전이 버서지고 상도고기가 탁 풀리고 더 마되여 목이 쉬여<하10>
- ④ 사또 분이 엇지 낫던지 벌벌 썰며 기가 막켜 허푸허푸하며<하11>

①은 성춘향을 처음으로 보고 수청을 요구할 때의 모습이고, ②는 일부종사를 이유로 수청을 거절한 성춘향의 이야기를 들은 뒤의 모습이다. ③은 변화도

의 행위를 유부갑탈로 비유하는 성춘향의 소리를 듣고 보인 모습이며, ④는 성춘향에게 형벌을 명할 때의 모습이다. 이처럼 변학도는 춘향을 회유할 때와 회유에 실패했을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표출한 상태이며, 그 모습은 지방관장으로서의 권위주의적 권력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성춘향을 회유할 때 보인 모습이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한 위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인물들은 그의 분노하는 모습에서 지방관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것이며, 성춘향에게 형벌을 가하는 엄숙한 분위기에서도 우스꽝스럽게 볼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가 묘사한 변학도의 모습은 위선의 인물이며, 그의 권위주의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 서술자는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도를 당하는 변학도의 행동과 발화를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본관이 똥을 싸고 명석궁기 식양취 눈 쓰듯 호고 니아로 드러가서 어 추
 위라 문드러온다 바람다더라 물마른다 목디러라<후38>

변학도의 행동과 발화는 겁을 먹은 모습 그대로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제력, 지방관장으로서의 처신, 그리고 지배계층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며, 지배계층의 가치체계가 파괴되는 광경이다. 즉 지배계층에 대한 서술자의 이러한 묘사는 지배계층의 처신을 세속화시키고, 그 권위를 비천화시킨다. 그리고 피지배계층을 포함한 다른 인물들은 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처럼 지배계층의 세속화와 비천화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가 겁먹고 당황하는 변학도의 우스운 모습을 통하여 파괴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묘사하는 변학도의 행동과 발화는 스스로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파괴한다.

변학도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자신의 우스운 모습으로 파괴하는데, 여기에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춘향의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먼저 가치체계가 그 핵심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파괴된다는 것은 가치체계를 유

지하면서 거기에 근거한 규범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쳐야 할 지배계층의 타락 또는 모순에서 기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춘향이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의지는 한량을 비롯한 여타의 피지배계층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타락 또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가 더 이상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때 사회구성원들은 새로운 가치체계를 요구하거나 그 가치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가 이데올로기로 성립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배자로서의 개인적 욕망을 권위주의로 실현하려는 입장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첫째, 변학도의 모습은 위선의 인물로서 그의 권위주의를 우스꽝스럽게 드러내고, 둘째, 그러한 지배계층의 세속화와 비천화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우스운 모습으로 파괴하며, 셋째,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가치체계 또는 가치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춘향전에서는 가치체계를 회극적으로 해체하는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향유하면서 흥미를 느껴온 춘향전의 의미를 성춘향과 변학도의 발화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성춘향과 변학도의 발화를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변학도의 발화는 유학적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가치체계를 실현하는 데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차별화하고, 지배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권위주의로 성취하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변학도의 입장이 지배계층으로서 가면인 것이다.

둘째, 성춘향의 발화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활용한 개인적 욕구 성취를 그 가치체제로써 저절하며, 피지배계층의 집단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지배계층의 권위주의적 가치체계의 허상을 밝히고,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에 근거

하여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셋째, 지배자로서의 개인적 욕망을 권위주의로 실현하려는 변학도의 모습은 위선의 인물로서 지배계층의 권위주의를 우스꽝스럽게 드러내고, 그러한 지배계층의 세속화와 비천화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우스운 모습으로 파괴한다.

넷째,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성춘향의 의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가치체제 또는 가치체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가치체제의 회극적 해체 이데올로기로 성립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춘향과 변학도의 발화의 의미에 근거하여 춘향전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춘향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가치체계의 회극적 해체 이데올로기는 지배계층의 권위주의 이념에서 벗어나려는 피지배계층의 이념적 탈중심화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당대의 지배적 가치체계를 그 가치체계의 핵심에 의존하여 해체하려는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시대의 사회에만 성립하지 않고 어떤 시대의 사회에서도 그 성립이 가능하다.

셋째, 춘향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의미는 어느 시대의 사회에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춘향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열녀춘향수절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자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전체 내용 가운데 성춘향과 변학도의 발화만을 분석하여 얼마간의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춘향전이 계속적으로 독자에게 향유된 원동력은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그 원동력을 밝히는 데는 성춘향과 변학도의 발화가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용의 한계를 극복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자료 또는 내용에 따른 변용을 확인하는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